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10. 14. 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김경익	☎ 760-7510
		농업재해대응팀장	허영길	☎ 760-755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브로콜리 병해 확산 우려…적극 방제 당부

- 고온다습한 날씨 지속…검은무늬병·검은썩음병 확산 방지 필요 -

□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은 월동채소 주산지인 애월읍, 한림읍 지역에서 브로콜리 검은무늬병과 검은썩음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.**

○ 올해 9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.4℃ 높았고, 강수일수는 20일로 평년의 2배에 달했다. 지난 11일 기준 평균기온도 평년 대비 5.5℃, 전년 대비 3.9℃ 높으며, 강수량 역시 전년보다 16.1㎜ 많아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.

□ **이러한 기상 여건 속에서 일찍 정식한 조생종 브로콜리는 꽃봉오리(화뢰)에서 검은무늬병, 잎에서는 검은썩음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, 만생종에서도 초기 병반이 나타나는 등 예년보다 약 2주 빠르게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.**

○ **검은무늬병**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, 과습하고 밀식된 포장에서 주로 발생한다. 줄기나 잎자루에 동그랗거나 타원형의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말라죽는다. 꽃봉오리에 감염되면 검은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썩어 상품성이 크게 저하된다.

○ **검은썩음병**은 세균이 원인으로, 비나 바람, 곤충이 생긴 상처를 통해 감염된다. 잎 끝이 노랗게 변하며 U자나 V자 모양으로 변색되는 것이 특징이고, 심하면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□ 농업기술원은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△강우에 대비한 포장 내 배수로 정비 △밀식 재배 지양 △초기 병반 발견 시 등록된 살균제를 7~10일 간격 2~3회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.

○ 또한, 브로콜리 주요 병해의 진단과 방제 정보를 담은 '브로콜리 검은무늬병, 검은썩음병 진단 방법' 리플릿을 제작·배포했으며, 관련 자료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농업기술원 누리집*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.

* 누리집: https://agri.jeju.go.kr/agri/index.htm

□ 허영길 농업재해대응팀장은 "브로콜리 병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육이 진전되면 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"며 "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잎에 이상이 보이거나 비가 자주 내릴 경우 전용 약제를 사용해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수확 피해를 줄일 수 있다"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